

“밀원수 식재” 사업 적극 동참하자



최규철 사무총장

지금의 농업계의 최근 상황은 김치의 기생충알 파동과 쌀 값 하락 및 수입쌀 불안감에 농민들은 대거 시위를 하고 있다.

우리 양계농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및 중국의 확산으로 이를 대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정부는 식품 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농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태이다.

특히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 세부원칙마련을 위한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홍콩각료회의가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으나 국내 언론과 국민을 비롯 해 농업인까지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홍콩각료회의 세부원칙에서는 관세와 보조금을 얼마나 깎을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우리의 농협에 직접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논의에서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75~100%의 관세 상한을 설정하고 최상위 구간(현행 관세 200%이상인 품목)의 관세를 75~90%까지 삭감하자는 제안을 해 놓고 있다.

급변하는 농업계 상황을 볼 때 앞으로의 우리 양봉산업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만이 세계 흐름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양봉산업의 가장 취약점인 밀원수 식재가 최우선의 과제이며 밀원이 없는 양봉산업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양봉인이라고 함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생산농가도 수입양봉산물에 대비하여 막연히 양봉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고품질의 양봉산물 생산과 기능성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구책이 필요하며 값싼 수입농산물과 경쟁에서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해외 수출을 꽤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있을 것이다.

그간 본 협회에서는 밀원수 식재 붐 조성을 위해 농림부 및 산림청의 밀원의 중요성을 건의하였고 지역별 공청회개최와 각종 교육 등을 통하여 특용수종(기능성 밀원수)를 식재 하도록 홍보하여 경제림(특용수종)을 식재하여 一石二鳥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6년부터 본 협회 주관으로 밀원수(묘목: 헛개나무, 엄나무 50만주/5억1천8백만원)묘목을 정부지원으로 보급하기 위해 각 시·도지회별 묘목을 분배하여 수요량을 조사하고 있다.

밀원식물(초본류 : 유채, 메밀 등)도 식재하기 위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시·도 지회에 통보한바 있으며 10월 협회보에도 게재 한 바 있다.

또한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경관유지·보존하기위해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유채, 메밀)을 재배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각 시·군단위별 또는 개인이 신청하여 전 국토 밀원조성 적극 동참하자.